

# 통합·분구·구역 조정 평행선... 선거구 획정 막판 수싸움

### 접점 못 찾으면 원안처리 가능성...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 민주, 2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방침...국힘 “부결 될 것”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해 막판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태다. 총선이 불과 45일 남은 25일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아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3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견해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지역구 분구·합구 문제는 물론, 여야가 특별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기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살리고 불리한 지역구는 줄이려는 ‘주판알 싸움’에 몰두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6개는 통합하고 6개는 분구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제시했다.

통합·분구에 따른 시·도별 증감을 합산하면 전체

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닷밭’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을 1석 줄이 자고 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해놓은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도로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서울 중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를 통해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 잠정 합의가 파기되면 강원도에 속초·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아우르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여야는 2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8일 획정위 원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재표결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약법’으로 규정하면서 하루빨리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이 재표결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인 297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1차 공천 결과 발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

### 이준석 “이기는 공천 알기에 신뢰”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4·10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관위원장을 선임한다”며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양대 정당 비대위원장을 거처며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공천 관리의 큰 역할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은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이탈하기 전부터 공관위원장 선임을 위해 김 전 위원장에게 접촉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맡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입장 선회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 우리와 활발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격정되는 지점을 밟았고,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서삼석 “재산 증가 의혹 사실무근... 법적 대응”

###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서삼석 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이 최근 재산 증가 및 재산 형성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25일 “최근 보도된 ‘재산 증가 및 재산 형성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선거 방해 공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과 경선을 앞두고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특정 후보를 해롭게 하는 전형적인 마타도어”라며 “근거와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의 저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신문에서 의원이 무안군수를 중도 사퇴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약 6년 반 동안 6억원가량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재산 형성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서 의원은 “불순한 의도로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예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명을 요구한다면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법·탈법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정계를 떠나겠다”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난데없는 의혹 보도, 집회에 이어 중앙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당의 공천을 방해하는 일련의 수순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민을 분열시키고 공정 선거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이재명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 중단해야”

### “정부, 파업 유도 후 진압하며 500명 전후 타협하는 의혹 사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러 2천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쟁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